지난달 31일 국회 본회의에서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이 통과됐다. /국회 영상 캡처

P2P 금융법 국회통과

대·중소형社 동상이몽

P2P금융법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P2P업체 간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대형 P2P업체는 법제화를 통해 본격적으로 시장에 뛰어들 준비를 하고 있는 반면 중소형 P2P업체는 자본금과 인력이 열악해 생존을 걱정해야 하는 처지가 됐기 때문. 중소형 P2P업체는 투자가 우량기업에 쏠리지 않도록 구체적인 방안이 추가적으로 마련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다.

5일 금융권에 따르면 '온라인 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P2P금융법)'이 통과됨에 따라 법정협회인 온라인투자연계금융협회를 설립하기 위해 준비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 한국P2P금융협회(44개사)와 마켓플레이스금융협의회(5개사)가 업무권역 전체를 아우를 수 있는 협회 구성 방안을 마련하고 있는 것.

대형업체

법제화 통해 금융 입지 다질 계획

"협회 마련 되는대로 의견 취합"

중소형업체

우량기업에 투자 쏠림·소외 우려

진입문턱 높아 일부만 성장 가능성

P2P금융법 5장 37조를 보면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의 업무 질서를 유지하고 건전한 발전과 이용자 보호를 위해 온라인투자연계금융협회를 설립해야 한다. 법 시행에 맞춰 모든 P2P업체는 설립되는 협회에 가입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준비위원회 관계자는 "새 통합 협회는 업체 통계를 관리하고 자율 규제 안을 만들며 금융위·금감원과의 가교 역할을 해야 한다"며 "법안 상 시행 전에 협회를 구성하도록 돼 있어 내년 상반기 중에는 발족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 과정서 대형 P2P업체와 중소형 P2P업체 간 희비는 엇갈리고 있다. 투자자 보호를 위해 법제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에는 모두 동의했지만 추후 마련될 시행령과 협회 방안 등은 대형 P2P업체에 맞춰질 가능성이 높아졌단 판단에서다.

중소형 P2P업체는 대형P2P업체에 기준이 맞춰질 경우 진입문턱이 높아 상위 10개 업체만 성장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한다. 특히 이들은 개인투자한도를 업계 총액으로 전환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지적한다.

현재 P2P업체는 가이드라인에 따라

P2P 금융업계가 법정 협회 준비위원회를 꾸리고 협회 출범 작업에 착수했다. 김성준 렌딧 대표 겸 마켓플레이스금융협의회 운영위원장(왼쪽)과 양태영 테라핀테크 대표 겸 한국P2P금융협회장이 공동 준비위원장을 맡았다. /마켓플레이스금융협의회

개인투자한도가 상품당 500만원, 업체당 최대 1000만원(비부동산 2000만원)으로 제한된다. 개인투자한도를 업체에서 P2P업계 총액으로 확대할 경우 상대적으로 우량한 P2P업체에 개인투자가 쏠릴 수 있다는 분석이다.

그러나 대형 P2P업체는 "상대적으로 우량업체로 투자자금이 쏠리는 부분은 투자자들의 피해를 감소시켜 시장건전성을 높일 수 있다"며 "투자한도를 상향 조정하는 안이 고려되고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투자폭은 넓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중소형 P2P업체는 또 증권사 사모펀드 등 금융기관의 P2P투자 허용 부분에도 추가적인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한다. P2P금융법에 따르면 금융기관은 P2P상품당 40% 이내를 투자할 수 있다. 이 경우 금융기관이 한 P2P업체의 여러 상품에 투자할 수도 있다는 의미다. 금융기관이 안정적인 P2P업체를 대상으로 투자할 경우 중소형 P2P업체는 소외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대형 P2P업체는 "중소형 P2P업체가 투자 유치등 경쟁에 밀려 사업이 어려워질 가능성이 있다는 부분에 충분히 동의한다"면서 "현재 협회 가입이 돼 있지 않은 업체도 많고, 시행령이 마련되지 않아 방안을 찾기엔 이른감이 있어, 협회가 마련되는대로 의견 등을 취합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현재 금융당국은 시행시기에 맞춰 법안이 시행될 수 있도록 구체적 시행령 등을 마련하고 있다.

P2P업체의 최소 자본금 요건과 개인투자자의 투자한도, P2P업체의 동일 대출자 대출한도, 자기자본투자조건, 기관투자자 투자액 상한 등이 그 대상이다. 금융위는 오는 12월 시행령 등 하위 법규를 입법 예고하고 부처협의 법제처 심사를 거쳐 내년 6월 공포할 계획이다. /나유리 기자 yul115@metroseoul.co.kr

수수료 인하 압력 피해 활로 모색

블루오션 찾아 해외 눈돌린 카드사

비씨카드 창사이래 최초 외국자본

현대카드 FCCOM에 금융 노하우

신한, 국민 해외법인 설립해 성과

카드사들이 해외 금융사와 손잡고 적극적인 해외진출에 나서고 있다. 국내 가맹점 수수료 인하 압박으로 수익성 악화가 예상된 카드사들이 새로운 먹거리를 찾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모양새다.

5일 카드업계에 따르면 비씨카드는 최근 중국 은련상무 유한공사와 업무협약을 맺고 신사업 발굴에 나섰다. 비씨카드 창사이래 최초의 외국자본 유치다.

비씨카드의 자회사인 스마트로는 은련상무와의 협력을 바탕으로, VAN 및 PG사업 시스템 고도화 추진·가맹점 인프라 서비스 차별화 등 더욱 편리한 결제 서비스를 개발해 선보일 계획이다.

현대카드 또한 지난 29일 베트남 현지 소비자금융업체인 FCCOM의 지분을 인수하고, 자동차할부와 연계된 신용대출 사업을 본격적으로 진행한다.

현대카드는 FCCOM에 금융상품과 마케팅, 리스크관리, 디지털금융 등 분야에서의 선진금융 노하우를 주도적으로 이식할 예정이다. 현지 시장에 정통한 FCCOM는 영업과 실무 오퍼레이션 부문을 책임진다. 사업은 현재 주력 분야인 개인금융에서 비즈니스 인프라 확충과 함께 신용카드와 자동차금융, 기업금융 등으로 순차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업계 1, 2위인 신한카드와 KB국민카드도 이미 베트남과 인도네시아 등 신남방국가를 중심으로 해외 법인을 설립하면서 눈에 띄는 성과를 나타내고 있다.

신한카드는 현재 베트남과 인도네시아, 카자흐스탄, 미얀마 등 4개국에 진출해 올 상반기 57억원에 달하는 첫 흑자를 기록했다.

특히 지난 7월 출범한 신한베트남파이낸스(Shinhan Vietnam Finance Company Limited)가 현지 신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면서, 올해 3분기 신한카드의 순이익은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23.1% 증가한 1398억원을 기록했다.

KB국민카드도 지난해 말 인수한 캄보디아 법인 'KB대한특수은행'과 라오스의 'KB코라오리싱'의 상반기 합산순익이 52억원에 달하며, 3분기 순이익은 지난해 대비 36.4% 증가한 1049억원을 달성했다.

카드업계 관계자들은 "국내 카드사들의 이같은 해외 진출은 가맹점 수수료 인하 등으로 더 이상의 수익 창출이 어려운 국내시장을 넘어 해외 현지에서 새로운 기회와 가능성을 모색하겠다는 전략"이라며 "가장 활발한 영업활동을 전개하고 있는 동남아 국가를 발판삼아 향후 더욱 다양한 현지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홍민영 기자 hong93@metroseoul.co.kr

국내 카드사 해외 진출 국가

카드사	국가
신한카드	카자흐스탄, 인도네시아, 미얀마, 베트남
KB국민카드	캄보디아, 라오스
BC카드	중국, 인도네시아, 인도, 싱가포르, 베트남
롯데카드	베트남
하나카드	일본, 베트남
현대카드	베트남
우리카드	미얀마

/자료=각 사

사전계약 1500대… '올 뉴 익스플로러' 돌풍예고

9년 만에 완전변경 모델 출시

포드 최초 이중벽 대시보드

국내 수입 대형 스포츠유틸리티차(SUV) 시장을 이끌어온 포드의 베스트셀링카 익스플로러가 9년 만에 완전변경(풀체인지) 모델로 돌아왔다.

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는 5일 포드의 플래그십 SUV인 익스플로러의 6세대 모델 '올-뉴 익스플로러'를 공식 출시했다. 국내 수입 대형 SUV 시장을 주도해온 만큼 익스플로러는 출시 전부터 사전계약 1500대를 넘어서며 돌풍을 예고하고 있다.

1990년 1세대 모델 출시 이후 전 세계적으로 800만대 이상 판매된 익스플로러는 국내에서도 상당한 인기를 누려왔다. 대형 모델로는 이례적으로 2017년과 2018년 2년 연속 수입 SUV 판매 1위에 오르기도 했다. 특히 매달 500대 이상의 판매를 기록할 정도다.

포드코리아 올-뉴 익스플로러.

9년만에 완전히 새로운 모습으로 돌아온 신형 익스플로러는 포드의 차세대 후륜구동 아키텍처를 적용해 온·오프로드에서 탁월한 주행 성능을 발휘한다. 포드 최초로 적용된 이중벽 대시보드(엔진룸과 탑승공간 사이의 이중벽체 구조) 덕에 실내 정숙성도 역대 가장 조용한 모델이란 평가를 받을 만큼 강화됐다. 올 뉴 익스플로러에 탑재된 2.3L GTDI 엔진은 최고출력 304마력과 최대토크 42.9㎏·m의 성능을 발휘한다. 여기에 새로운 10단 자동변속기와 결합돼 부드러운 주행감을 제공한다. 연비도 1리터당 8.9㎞로 전 세대 대비 1㎞ 향상됐다.

포드의 통합 운전자 지원 시스템인 코-파일럿 360 플러스를 비롯한 다양한 스마트 테크놀로지는 안전하고 여유있는 주행 경험을 선사한다. 또 이전 모델 대비 늘어난 4324L의 탑승공간을 확보한 것도 한가지 강점으로 꼽힌다.

포드코리아는 신형 익스플로러를 통해 수입 대형 SUV 왕좌를 수성할 방침이다. 아시아에서는 한국 시장에 처음으로 출시했다. /양성운 기자

외환보유 4063억달러… 9개월만에 사상 최대

전월比 30억달러 늘어

지난달 우리나라 외환보유액이 사상 최대치를 경신했다.

한국은행이 5일 발표한 '2019년 10월 말 외환보유액'에 따르면 지난달 말 외환보유액은 4063억2000만달러로 전월 대비 30억달러 늘어났다. 역대 최대 규모다.

외환보유액은 지난 1월(4055억1000만달러) 사상 최대치를 기록한 후 달러화 강세로 기타통화 표시자산의 달러화 환산가치가 줄면서 소폭 늘거나 대체로 감소하다 지난 9월 증가세로 돌아섰다.

한은은 "외화자산 운용수익 자체가 늘어난 가운데 미 달러화 약세로 유로화, 엔화 등 기타통화 표시 외화자산의 달러화 환산액이 증가한 영향"이라고 설명했다.

한은에 따르면 주요 6개국 통화 대비 달러화 가치를 나타내는 미 달러화 지수(DXY)는 지난달 97.65로 한 달 전보다 1.5% 하락했다.

외환보유액 구성 내역을 보면 국채와 정부채, 회사채, 자산유동화증권(MBS) 등 유가증권이 3738억달러로 전월 대비 7억달러 감소했다. 해외 중앙은행이나 글로벌 은행 등에 있는 현금성 자산인 예치금은 216억8000만달러로 36억6000만달러 증가했다. /김희주 기자 hj89@